

학교發 코로나 위기... 학사일정 '빨간불'

어제 여고생 1명 확진... 확진 판정 고교생과 동선 겹쳐 제주, 9일 기준 누적확진자 599명... 782명 자가격리중

제주오현고등학교 학생에 이어 제주 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잇따른 학생 감염으로 학사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도보건의환경 연구원으로부터 도내 59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에서는 9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599명

으로 늘었다.

599번째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도방역당국은 599번이 오현고등학교 확진자 중 한 명과 동선이 겹친 것을 확인했다. 다만 599번이 이 과정에서 오현고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등 정확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99번째는 제주의료원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으며 코로나19 증상은 없는 상태다.

도방역당국은 599번이 지난 5일까지 학교에 등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반 학생과 교사, 이동 수업(반을 오가며 받는 수업)을 받은 학생 등 제주여성 25명을 포함해 599번 가족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방역당국은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 검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오현고 학생 4명(593·594·596·599번)과 탐라중 교사 1명(592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오현고 확진자 중 최초 감염자인 593번이 탐라중 교사인 592번의 자녀이다.

이로 인해 오현고·탐라중 학생, 교

직원 등을 포함해 총 639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175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아울러 제주시내 불령장 12곳의 방문자와 종사자 등을 상대로 진행된 일제 검사에선 현재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제주시 아라1동 아래캐슬웨딩홀의 이용자·방문자에 대한 검사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없다.

한편 9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치료 확진자는 40명, 자가격리자는 782명(확진자 접촉자 512명, 해외입국자 270명)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 812일만에 자진 철거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 벌여졌던 제주도청 앞 천막 농성이 812일만에 종료됐다.

도청앞천막농성자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청 앞 접거 농성을 마무리하며 천막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천막농성자들은 "원도정은 폭력적인 천막철거 행정대집행과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꺾으려 했지만 우리는 꺾이지 버티며 무려 2년 3개월, 812일 간의 '포기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냈다"며 "우리는 812일의 시간을 '시민 정치의 시간'이라 부른다"고 자평했다.

강민성기자 kms650@ihalla.com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오던 천막농성자들이 9일 농성 812일만에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불법조업 中어선 1척 나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해역에서 입·출역 통보 위반 및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라도 남서쪽 83km 떨어진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입·출역 통보 위반으로 중국쌍터망어선 A(178t·승선원 9명)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쌍터망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호 및 제10조 입·출역 통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650@ihalla.com

"대신 사주면"... 외제차 사기 일당 검거 피해자 전국적으로 280명 넘고 피해규모 600억대

해외로 수출할 외제차를 대신 구입해 주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타지역 무역회사 대표 B씨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소제를 파악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

지 6개월 할부로 1억원대 외제차를 사주면 1대당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할부금도 모두 대납하겠다고 속인 뒤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만 280명이 넘고, 피해액도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각 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집합금지 어긴 업주 벌금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기인 지난해 9월 28일 0시부터 오전 3시53분까지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의 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제2공항 정보유출 진실게임

국토부 "후보지 사전 유출 의혹 사실 아니다" 해명 도민회의 "발표 직전 현지 토지거래 폭발 설명 못해"

제주 제2공항 입지 정보 사전유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를 다시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상 도민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제2공항 사전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지난 8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사전 정보유출이 없었고, 이에 따른 투기도 없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은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정보유출 의혹은) 개별계획과 관련된 정부여당, 국토부 관계자와 용역진, 자문위원, 제주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사전 정보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2015년 7월부터 제2공항 발표가 있던 같은해 11월까지 성산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과 이중 2/3에 달하는 64%가 서울 등 타지역 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즉시 수사의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2공항 계획의 사전 정보유출과 그에 따른 투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올해도 봄 축제 직접 보기 힘들 듯

전농로왕벚꽃축제·가파도청보리축제 취소

유채꽃축제는 비대면
들불축제 오름 불농기
13일 드라이브인 진행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제주유채꽃축제는 올해 비대면 행사로 개최된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약 3만평(9만5000㎡)의 유채꽃밭을 갈아엎었지만, 올해는 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되기로 결정되면서 예쁜 유채꽃을 구경할 수 있게 됐다.

축제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유채꽃 개화시기인 4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개최 날짜는 협의 중에 있다"며 "가시리 마을회 등이 녹산로 일대에 조성한 유채꽃밭을 촬영해 3일간 서귀포시 공식 SNS에 송출하는 등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채꽃 구경은 최대한 차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유채꽃 광장 별도 출입구를 지정하고 검역소를 설치해 방역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했던 '2021 제주들불축제'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된다. 들불축제의 최대 볼거리인 오름 불농기는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민성기자 kms650@ihalla.com

지난해 줄줄이 취소됐던 3~4월 봄 축제들이 올해도 코로나 여파를 피하지 못하면서 관람하기 힘들 전망이다.

9일 축제 주최측 등에 따르면 올해 전농로왕벚꽃축제와 가파도청보리축제는 취소됐다.

전농로왕벚꽃축제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데다 전농로는 도심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과다. 또 프로그램, 행사 등 준비 소요기간이 한달 이상이 필요한 점도 작용했다.

가파도청보리축제도 마찬가지다. 가파도 주민 등으로 구성된 가파도청보리축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여객선 운항 등 코로나 방역 위험 부담이 있어 올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대정읍사무소에 의견을 전달했다.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석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해충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주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도움**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